신나는
충남초등돌봄교실!
만들자!

충남초등돌봄교실 안정적 운영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충청남도의회 의정토론회

- **일 시** 2019. 7. 2.(화) 10:00~12:00
- **장 소** 당진교육지원청 대강당
- **주 최** 충청남도의회 [좌장: **홍기후 의원** (교육위원회)]
- **주 제** 충남 초등돌봄교실 안정적 운영과 개선방안

충청남도의회

충남초등돌봄교실
안정적 운영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충청남도의회 의정토론회

의정토론회 진행 안내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9. 7. 2.(화) 10:00~12:00
| **장 소** | 당진교육지원청 대강당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좌장: 홍기후 의원(교육위원회)]
| **주 제** | 충남 초등돌봄교실 안정적 운영과 개선방안

진행흐름

시 간		내 용	비고
개회식			
10:00~10:05	05′	개회 및 국민의례	
10:05~10:10	05′	내빈소개, 개회사	
10:10~10:30	20′	주제발표	
10:30~11:10	40′	지정토론	
11:10~11:30	20′	패널토론	
11:30~11:50	20′	종합토론	
11:50~12:00	10′	정리 및 폐회	

충남초등돌봄교실
안정적 운영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충청남도의회 의정토론회

Contents

발제

01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개선방향

박성식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토론

21 충남초등돌봄교실 현황과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언

김정아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세종본부 초등돌봄분과장

29 2019 충남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박동인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

41 선생님(돌봄전담교사)이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배정화 | 상록초등학교 운영위원장

47 충남 초등돌봄교실 내실화 방안

박기성 | 원당초등학교 교감

신나는 충남초등돌봄교실 만들자!

충남초등돌봄교실
안정적 운영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충청남도의회 의정토론회

EDU * 발제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개선방향

박성식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개선방향

돌봄교육 확립과 제도적 뒷받침, 돌봄전담사의 역량과 처우의 개선

박성식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Ⅰ.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

1. 초등돌봄교실의 필요성(형성 배경)
2. 초등돌봄교실 정책의 현황
3. 돌봄교실의 역할과 가치

Ⅱ.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1. 초등돌봄교실 확대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
2. 초등돌봄전담사의 정의 및 자격
3. 초등돌봄전담사의 역할 및 업무
4. 초등돌봄전담사 인력 운영 현황

Ⅲ.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전담사 노동조건(처우) 개선 요구

※ 첨부: 시·도교육청별 돌봄전담사 처우 현황

“

지금까지 초등 돌봄 정책은 롤러코스터를 타듯 변해왔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선정돼 왔어요.
하지만 규모를 늘리는 것에만 집중돼 있고, 어떻게 질을 높일 것인지 고민이 없었어요.
그러니 저 같은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지, 정부는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일할 사람은 필요하니까 단시간 근무 같은 안 좋은 일자리만 늘리는 거예요.

”

(충남지역 교육공무직 돌봄전담사 기○○)

Ⅰ.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

1. 초등돌봄교실의 필요성(형성 배경)

○ 도입

-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방과후과정에 대한 교육부 정책이 본격화
-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를 시작으로 2004년부터 학교에 본격 도입

○ 배경

- 가족구조의 다양화, 한 부모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
- 방과 후 아동의 돌봄 등 교육복지 필요성 증대
-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 빈곤층과 학업성취도의 차이 등 취약계층 증가

↓

- 교육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대두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상담교실 등 교육복지 확대 필요성 증대

↓

- 2004년 교육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초등돌봄교실 제안
- 지금도 돌봄 교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계속 높아지고, 초등돌봄교실 정책도 계속 확대되는 추세

○ 운영시간

-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방과 후 오후 시간대를 중심으로 저학년(1-2학년) 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방과 후부터 오후 5시나 6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오후 돌봄)
-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지만 출근 전, 퇴근 후까지 아침 돌봄이나 저녁 돌봄이 운영되기도 한다.

○ 초등돌봄교실 형성의 특징

- 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육아부담을 덜고 재취업을 기대
- 그러나 초등학교 시기라도 여전히 안전사고, 정서적 불안, 학업부진 등을 우려
-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보육환경이 확보되지 못하면 경제활동 불가능
- 특히 초등학교부터는 본격적인 교육경쟁이 시작되므로 방과 후에도 교육활동에 대한 부모의 욕구가 존재(돌봄 교실이 고학년까지 확대되면 교육활동 요구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초등돌봄교실 형성과정의 교훈**

돌봄 교실은 일시적 필요나 특정 정부의 정책으로만 이해해선 안 되며, 사회변화에 따른 항상적 필요와 시대적 요구를 수용한 필수 교육복지로 이해해야 교육부, 시·도교육청, 국회 및 시·도의회, 지자체는 국민적 요구를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2. 초등돌봄교실 정책의 현황

○ 2018년 4월 4일 문재인대통령 '온종일 돌봄 정책' 발표

- 22년까지 학교 돌봄 24만→34만, 마을 돌봄 9만→19만으로 확대
- 돌봄 대상 초등 학년(6학년까지) 및 시간(19시까지) 점차적 확대

○ 2018년 4월 관계부처 공동 논의로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확정

- 5월 21일 돌봄 교실 확충('18년 700실)을 위한 시설비 210억 원 추경 확보
- 6월 26일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 사업' 선정.[1)]

○ 10월 12일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온종일 돌봄 체계 TF〉 구성

-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온종일돌봄체계 개선과제를 발굴, 개선(정말?) 실제론 돌봄 현장의 주체인 돌봄전담사의 의견 수렴은 없음

☞ **정책추진 과정의 교훈**

- 돌봄 교실을 학부모의 호응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접근(시설, 시간만 고려)
- 교육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의 깊이와 관점이 부족
- 정책 수요자(학부모)에 대한 고려는 있으나, 정책 실행자(돌봄전담사)에 대한 고려가 없음
-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돌봄전담사의 의견 반영한 절차 필요. 왜냐하면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돌봄 확대는 결국 재정과 행정적 지원 없이 돌봄전담사들의 희생과 책임감에만 기대게 됨. 근거 법령이나 조례 등 제도마련 필요

3. 돌봄 교실의 역할과 가치

○ (어른의 시각으로 본)역할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 주관 하에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시간 이외의 방과 후, 방학 중, 학교 시작 전 등의 시간에 성인의 돌봄이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가정과 같은 자유와 편안함을 제공하는 가운데 학생을 안전하게 보살피고 정서적·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며, 학업성취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1) 지원 지역으로 서울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대전 서구, 경기 시흥시, 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총 9개 지역)를 선정. 선정 지역에 3년간('18~'20) 총 80억 원을 차등지원. 유형별로 모델화한 돌봄 서비스를 모범사례(Best Practices)로 발전시켜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예정.

○ (아동의 시각으로 본)역할

방과 후에 집 대신 초등돌봄교실에 간 아동은 그곳에서 학교가방을 내려놓고 놀이 활동도 하고 간식을 먹으며 쉬기도 한다. 그러므로 초등돌봄교실은 학교가 아닌 집 냄새, 부모 냄새, 이웃 냄새가 나는 학교 속 가정이자 놀이공간이어야 한다.

○ 세부적 역할

- 또 하나의 가정 : 안전한 보호, 급식 및 간식 제공, 일상생활지도,
- 또 하나의 교육 :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학습능력 파악, 숙제 및 학습 지도
- 교육의 확장 : 심리적·정서적 안정, 다양한 문화체험, 지역 교육인프라와 연결

☞ **돌봄 교실의 역할과 가치를 통해 본 교훈**

- 초등돌봄교실은 단순하게 아이를 맡아두는 것이 아닌 다양한 교육기능(건강과 안전, 정서적 안정과 발달, 놀이를 통한 사회성 발달과 쉼, 학습활동의 보완과 확장)의 확대로 봐야한다.
- 돌봄전담사들의 역할은 마치 부모처럼 매우 복합적인 동시에 전문적이다.

Ⅱ.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1. 초등돌봄교실 확대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

○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필요성)

- 2016년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의 95.7% “만족한다”[2)]
- ('14년) 92.5% → ('15년) 94.8% → ('16년) 95.7%
- 한 언론사가 실시한 대한민국 40개 정책 평가에서 2015년 가장 잘한 정책

○ 예산

- 2015년 초등돌봄교실 보통교부액 3,514억 원
- 2016년은 11.6%(408억 원)를 증액하여 3,922억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
- 2018년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2년까지 1조원을 투입할 예정

○ 공급부족

- 2018년 초등돌봄교실은 전국 1만 2,398개로 26만 1287명이 이용
- 신청 인원이 월등히 많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
- 교육부 2019년 중 28만 명을 수용해 돌봄 공백을 없애기로 했지만, 체감부족
- 돌봄 교실 확대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
- 2022년까지 돌봄 교실 3,500개, 입실인원 7만 명을 늘린다는 계획

> ☞ **국정과제 추진이 주는 교훈**
>
> - 예산 증가가 시설, 시간 등 양적 생색에 치중할 뿐만 아니라 체감되지 않음
> - 돌봄 교실 운영의 핵심은 사람, 사람에 대한 예산 투입이 보이지 않음
> - 제대로 대접 받는 양질의 인력이 곧 양질의 돌봄 교실 실현의 핵심
> - 교육부의 정책 실행의지, 교육청 지도관리 의지가 안 보임. 정책만 발표해 놓고 교육청 재량에 맡기는 양상

2) 교육부(2016)가 통계청과 공동 실시해 교육부(2016)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2015년 연 2회(6,10월) 전국 초·중·고 1,244개교 학부모 4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2. 초등돌봄전담사의 정의 및 자격

○ 돌봄전담사 직무의 정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7): “정규교육시간 외에 아동에 대한 교육과 보호를 위하여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 인성지도, 생활안전지도,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방과후 운영관리 및 가정의 경제활동과 정서적 안정 등을 지원하는 직무”
- 교육부(2018): “돌봄 교실 프로그램의 운영과 아동의 보호, 교실관리, 관련보고, 기타 돌봄 교실 관련 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력”

○ 초등돌봄전담사의 양성

- 돌봄전담사 양성은 일부 민간에서 이뤄지며 국가의 공식적 양성과정은 없음.

○ 돌봄전담사의 채용과 자격

-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2016년, 2017년, 2018년 교육부 발간 배포)에 따르면 초등돌돔전담사의 자격 및 채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2019학년도에는 시·도별 초등돌봄운영계획에 따름)
- 첫째, 돌봄전담사는 돌봄 교실 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유초중등교사,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인력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 등은 시·도별로 채용 기준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 둘째, 돌봄전담사는 학교,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워크넷(고용노동부), 취업정보사이트 등의 온오프라인을 통해 확보한다.
- 셋째,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또는 단위학교에서는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돌봄전담사의 부재 시 활용한다(대체인력풀 구축·운영 권장).
- 넷째, 돌봄전담사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섯째, 시도교육청은 돌봄전담사에 대하여 돌봄 교실 안전관리, 돌봄 프로그램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여섯째, 방과 후학교 연계형 돌봄 교실의 경우, 교육기부자, 자원봉사자, 퇴직교원, 학부모, 교원 등 학교의 여건별로 다양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격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한다.
- 일곱째, 돌봄보조인력은 돌봄 교실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보조하는 인력으로 대학생, 학부모, 지역인사, 교육기부자 등을 활용한다.
- 또한 교육부(2016, 2017, 2018)에서는 초등돌봄전담사를 시·도교육청의 채용절차에 의하여 채용하되, 공개 모집과 서류 심사 및 면접 절차 등을 강화하여 유능한 인재를 발굴 및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시〉 경기도 초등돌봄전담사 자격소지 현황(2018. 기준)

(단위 : 명)

구분	유·초·중등교사 자격소지자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	기타 자격소지자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등)	무자격자	계
인원	924 (31.8%)	1,922 (66.2%)	24 (0.8%)	35 (1.2%)	2,905 (100%)

* 위탁업체 소속 초등보육전담사 9명 포함

출처 : 경기도교육청 제공 자료

☞ **돌봄전담사 역할 및 채용자격이 주는 교훈**

- 돌봄전담사는 방과후과정의 돌봄(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전문 인력 채용 자격을 보더라도 특정한 전문자격을 요구하고 있음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 보이지 않는다.
- 교육부와 교육청은 방과후돌봄이 전문성이 필요한 과정임을 인정하고, 질적 강화와 돌봄전담사에 대한 합당한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초등돌봄전담사의 역할 및 업무

○ 교육부(2016, 2017, 2018) 지침에 따른 초등돌봄전담사의 역할

① 학생 출결관리, 생활지도, 안전지도, 귀가지도
② 돌봄 교실 관리
③ 연간, 월간, 주간 운영 계획 작성
④ 프로그램 관리
⑤ 개인활동 관리
⑥ 급·간식 준비, 제공, 사후처리
⑦ 돌봄 교실 관련 업무 협조 등

○ 초등돌봄전담사의 기본적이고 필수적 역할(가천대 양윤이 교수)

① 학생들을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및 지도한다
② 학생들이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연·월·주간 생활계획표를 통해 운영한다
④ 일일교육 활동일지를 기록한다
⑤ 학생의 심신 발달이나 가정환경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⑥ 아동의 특성 및 특징을 고려한 개인차와 욕구에 맞도록 지도한다.
⑦ 교사 중심 활동을 지양하고 학생중심 활동을 지향한다.
⑧ 학부모와 소통하며 학부모 의견을 (수시로)반영한다.
⑨ 발달 단계를 고려한 자립심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초등돌봄전담사의 행정업무

1월	돌봄범정부 수요조사 안내장 기안 올리고 안내장배부. 안내장 수합해서 자료집계서식에 맞춰서 입력하고 기안올리고 결재나면 교육청으로 문서발송.(신입생) 돌봄신청서 배부 돌봄교실 관련 서류 접수. 정리. 안내문자 발송. 돌봄반배정(학교 홈페이지에 올림) 신학기 돌봄교실(교육청) 신청.
2월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세부 수용현황자료제출(1차,2차,3차) 교육청에서 자료집계 나옴(남은 예산 입력해서 보내고 확인) 돌봄예산 확인하고 결산하기. 방학중 중식비 결산하고 지출, 환불 기안 올리기. 특기적성 강사 채용 공고. 서류 취합해서 면접일정 잡고 면접진행. 강사 계약서 작성. 신학기준비
3월	돌봄설명회 개최(신입생, 재학생 대상으로 돌봄설명회. 돌봄교실 안내문 기안) 신학기 돌봄예산 지급되면 각반으로 예산 배정하기. 간식 업체 관련 서류(계약서.식단표.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등)행정실에 제출. 간식업체 기안 올리기(매월 간식품의) 자료집계.(신학기에는 많음. 학생수 등등) ★돌봄교실 계획안 만들기.(여름방학.겨울방학 계획포함등) 돌봄안내장 기안올리고 배부(간식비징수등등) 특기적성강사비 기안.품의 돌봄간식관련 기안올리고 품의.
4월	예산 관련 자료집계나옴(인건비, 급간식비등 급간식지원 아동 파악해서 지원금 작성) 돌봄교실 연간 소요액제출. 돌봄안내장(재량휴업일 참여여부등등) 특기적성강사비 기안.품의 5,6월 재량휴업일 돌봄교실 운영현황(자료집계)
5월	특기적성강사비 기안.품의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제출(자료집계)
6월	간식비 납부 안내장 기안올리고 품의. 특기적성강사비 기안.품의
7월	방학중 돌봄교실 참여아동 조사(안내장 기안해서 배부하고 수합) 중식업체 선정하고 운영위원회 승인나면 계약하기. 중식업체 수의계약사항(기안올리고 품의 올리기) 중식업체에 인원수 알리고 매일 수량 체크해서 확인하기. 중식비 납부 안내장 기안.배부. 특기적성강사비 기안.품의 여름방학중 돌봄교실 운영현황제출(자료집계) 저소득층 급간식비 추가신청자료제출(자료집계)

	돌봄교실 환경개선 자료제출(자료집계) 여름방학중 돌봄교실 운영현황 및 안전관리 점검자료제출(자료집계 관련 업무: 경찰서에 협조 공문 보내야함)
8월	중식비 정산하고 환불아동 환불기안 올리고. 품의. 특기적성강사비 기안.품의 마을과 함께하는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신청자료제출(자료집계) 돌봄교실 운영비 추가 신청자료 제출(붙임1. 붙임2 자료집계)
9월	간식비 납부 안내장 기안올리고 품의. 특기적성강사비 기안.품의 돌봄교실 운영현황 제출 알림(자료집계)
10월	돌봄교실 만족도 조사 안내장 기안 올리고 배부. 수합해서 자료제출(자료집계) 특기적성강사비 기안.품의
11월	특기적성강사비 기안.품의
12월	간식비 납부 안내장 기안올리고 품의. 방학중 돌봄교실 참여아동 조사(안내장 기안해서 배부하고 수합) 중식업체 선정하고 운영위원회 승인나면 계약하기. 중식업체 수의계약사항(기안올리고 품의 올리기) 중식업체에 인원수 알리고 매일 수량 체크해서 확인하기. 중식비 납부 안내장 기안.배부. 특기적성강사비 기안.품의 범정부 수요조사 안내장 기안, 배부. 수합해서 자료제출(재학생)
각반 운영물품 품의등	

☞ **초등돌봄전담사 업무 환경의 문제점과 교훈**

- 초등돌봄교실은 관련 운영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에 근거하여 운영)
- 시·도교육청마다 심지어는 학교마다의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초등돌봄전담사의 업무 내용과 시간, 임금 등 처우까지 중구난방.
- 돌봄 업무 외에도 부가적인 행정업무 부담이 크지만, 행정업무 시간의 확보가 되지 않는다.
- 총 근무시간을 아이들을 대면하는 시간에 맞춰놓고선 행정업무도 하고 쉬는 시간도 알아서 가지라고 함. 단시간제가 아닌 전일제 보장이 필요

4. 초등돌봄전담사 인력 운영 현황

○ 2018년 시·도교육청별 돌봄전담사 인원 현황(국립포함) ('18년 기준 교육부자료)

시도명	직접고용			위탁운영	계
	무기계약	초단시간 기간제	기간제		
서울	1,439	-	8	-	1,447
부산	403	-	6	112	521
대구	223	-	0	-	223
인천	499	1	22	-	522
광주	279	-	7	-	286
대전	269	-	18	-	287
울산	146	-	0	84	230
세종	2	121	0	26	149
경기	2,861	25	8	9	2,903
강원	327	2	0	-	329
충북	317	-	1	-	318
충남	**463**	**1**	**0**	**4**	**468**
전북	317	3	0	421	741
전남	594	15	2	1	612
경북	625	4	0	-	629
경남	769	51	3	-	823
제주	137	-	45	-	182
계(명)	**9,670**	**223**	**121**	**657**	**10,671**

○ 돌봄전담사 전국인원 구성
(2018년 4월 기준 교육부자료 / 같은 기관 자료지만 위 표와 차이남)

- 돌봄전담사 전체 인원 : 2017년 10,738 / 2018년 11,075

직종명	상시근로				방학중비근무				합계
	전일제	시간제		소계	전일제	시간제		소계	
		단시간	초단시간			단시간	초단시간		
돌봄 전담	1,638	3,448	1,079	6,165	1,628	2,817	465	4,910	**11,075**

○ 지역별 돌봄 교실 배치기준 및 근무시간(인원수 포함) 현황

지부	분과조사		교육청(18년) 및 [분과] 조사
	책임교실 (운영비)	교실당 정원	근무시간
강원	1인 1실 (1,350만원)	정원20명 (학기 초는 교장 재량으로 더 받을 수 있음)	6시간 이상: 325명 / 4시간 내외: 9명 [분과응답] 4시간은 없다. 신규채용도 6시간
경기	1인 1실 (465만원)인건비 간식비 제외	20~22명 이내	[분과응답] 8시간 350명 / 7시간 30명 6시간 1200명 / 4시간 1300명
경남	1인 1실	정원25명 (최대 37명까지 받는 학교 있음)	4시간내외: 554 / 3시간미만: 273 [분과응답] 6시간 상시근무도 있음
경북	1인 1실 (3,000만원)	25명 내외 (실제는 29명까지)	5시간내외:159 / 4시간내외:470 3시간미만:4(사립초)
광주	1인 1실 (1,495만원)인건비 별도	20명 내외(최대 23명)	8시간:152 / 5시간내외:134명
대구	1인 1학교 (1실 3,280만원) (2실 5600만원) (3실 7920만원) 인건비 포함	교실 당 정원은 명목상 20명 내외이나 1전담사가 1학교 전체 책임	8시간:11 / 6시간이상:196 5시간내외:16 총 223명
대전	1인 1실 (1,800만원)	정원 20명 내외 (최대 22명)	8시간:75 / 6시간 이상:194 5시간내외:21 / 총290명 [분과응답/2019기준] 8시간 89명 / 7시간 80여명 6시간 150~180명 / 5시간 120여명
부산	1인 1실	정원 20명	8시간:103 / 6시간이상:233 5시간내외:180 / 4시간내외:3
서울	1인 1실 (1,800만원 추가 1실 당 250만원 추가 교부)	정원 25명 내외	전일제: 587명 4시간: 860명 [분과응답] 8시간 570명 4시간 1160여명

지부	분과조사		교육청(18년) 및 [분과] 조사
	책임교실 (운영비)	교실당 정원	근무시간
세종	1인 1실 (2,300만원)	정원 20명 내외 (최대 28명까지 있음)	4시간:161명 초단시간: 127명 [분과응답]8시간10명 내외
울산	1인 1실 (3,437만원)	정원 20명 내외 (최대 25)	8시간:146명 / 5시간내외:84명
인천	1인 1실 (1,600만원) 인건비 별도	정원 20~25명이내	8시간:176 / 6시간이상:184 5시간내외:158
전남	1인 1실 (1,555만원)	25명 내외	6시간이상:51명 / 5시간내외:452명 초단시간(1주15시간미만):108명
전북	1인 1실(인건비 포함 2,500만원)	2018년 23명까지 2019년 22명까지	4시간 총745명 [분과응답] 4시간 735명
제주	1인 1실 (3,600만원)	25명 이내	5시간 근무 총182명
충남	**1인 1실 (2,100만원)**	**정원 20명 (최대25명)**	**[분과응답] 5시간 약500명**
충북	1인 1실 (2,370만원/인건비 별도)	20명 이내(최대 25명이나 실제론 25명 넘겨 운영)	8시간:292 / 6시간이상:9 5시간내외:7 / 4시간내외:9

☞ **초등돌봄전담사 인력운영 현황의 시사점**

- 같은 시기 같은 대상의 교육부 자료(위 첫째, 둘째 표)도 현황 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정도로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관리와 운영체계가 부실
- 서울교육청의 경우 전일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이며, 임금도 1유형으로 전문성 인정(첨부 표 참조)
- 충남교육청은 전일제 전혀 없이 단시간제로만 운영. 전국적으로 방중 근무(상시직)이 다수임.

Ⅲ.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전담사 노동조건(처우) 개선 요구

<주요 요구>

1. 온종일돌봄과 돌봄교실 질의 향상을 위해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상시/전일제로 전환한다. 단, 희망자에 한 해 단시간제 운영도 인정.

2. 돌봄의 교육적 가치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금체계를 상향 통일해 (유형1, 가급) 적용하며, 다른 전문직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동일한 전문자격수당(기본급 5% 이상)을 지급한다. 공무원임금 최소 80% 공정임금제를 실현한다.

3. 돌봄전담사의 기본권(휴게시간)과 별도의 행정업무시간 보장을 위해 상시/전일제 운영을 기초로 일일근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고정화하며, 교육청의 일방적 탄력 근로시간제 강요에 반대한다.

4. 주 40시간 이하 단시간 전담사의 차별을 개선한다. 처우개선수당 미지급 및 시간 비례 지급을 폐지하고 전액 동일 지급한다.

5. 학교 돌봄교실 운영 책임의 지자체 이관 및 위탁(외주화)을 금지한다.

6. 돌봄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돌봄교실 정원을 20명 이하로 정한다.

7. 돌봄전담사의 기본권(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인력을 마련한다.

8. 새 학기 돌봄교실 준비를 위해 최소 5일의 유급기간을 보장한다.
   (보장 사례 : 강원)

1. 시간제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 현황

- 전국 1만 명 초등돌봄전담사 중 8시간 상시전일제는 18%에 불과
- 전국적으로 제 각각인 근무시간으로 인해 돌봄 교육 격차 발생 및 직종 내 처우 차별
- 단시간 근무형태는 돌봄 교실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의 원인

○ 개선방향

- 온종일돌봄체제 구축과 안정적 학교 돌봄 확대는 단시간제가 아닌 상시전일제가 필수적
- 돌봄 교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행정과 수업준비를 위한 8시간 근무제로 개선
- 만족도가 가장 높은 대표 사업인 초등 돌봄의 주체는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를 기초로 운영의 권리와 책임을 분명히 확립하고, 그에 따른 처우개선
- 돌봄전담사의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임. 정규직화 원칙에 따라 기간제나 간접고용(위탁 등) 돌봄전담사들은 교육감 직접고용 및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최근 개선사례(경남)

- 초단시간을 주 22.5시간 월급제로 전환
- 기존 월급제 근무시간 주 30시간으로 확대
- 상시직 전환. 돌봄 교실 정원 25명 이내 제한

2. 임금체계 상향통일(유형1, 가급) 적용

○ 현황

- 실제 돌봄 교사와 동일업무를 수행하며 돌봄 교실 제반 교육을 책임지고 있음
- 보육교사 전문자격증 보유 등 업무 전문성을 갖춰야 입직하는 직종
- 서울만 돌봄전담사들만 같은 전문 직종인 영양사/사서 임금체계 적용

○ 개선방향

- 상향통일 : 서울과 동일하게 임금유형1로, 여타 전문직종과 동일한 자격수당
- 대통령 공약 사항인 정규직 대비 최소 80%수준 공정임금제 실현

3. 휴게시간 및 행정업무시간 보장

○ 현황

- 근무시간 전체에 걸쳐 아이들과 대면 접촉이 불가피. 사실상 휴게시간 없음
- 초/단시간의 경우에도 행정업무를 요구받지만 실제 행정업무 처리 시간이 보장되지 않음
- 휴게시간 미보장과 행정업무 초과노동 등 무급노동이 일상적인 상황
- 업무시간 외 학부모 상담 및 학생 귀가 시간 변경이 빈번함
- 업무 시작과 끝의 준비 및 마무리 업무도 무료노동으로 제공
- 업무시간 중에 휴기시간을 부여하도록 한 법과 충동하는 현실. 구조적인 부당노동행위

○ 개선방향

- 돌봄 교실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 교실 운영에 필수적인 행정업무 수행과 수업준비 및 마무리 시간 확보(전일제)가 필요
- 돌봄 교실 운영시간(아이들 대면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고용하는 부당함을 개선하여 준비, 마무리, 행정업무 필요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함
- 6시간제 유치원 방과후전담사는 운영일지를 제외한 행정업무 전혀 하지 않음(경기)
  즉 행정업무를 업무시간 중에 온전히 이행하기 위해선 8시간 전일제 전환이 필요함

4. 복리후생 처우개선수당 동일지급(시간비례 지급 폐지)

○ 현황

- 단시간제는 돌봄 교실 현실과 맞지도 않고, 전일제 아니라는 이유로 수당 차별
- 노동 대가성이 아닌 복리후생 또는 실비성 지급 금품까지 시간비례로 지급
- 시간제에 대한 수당 미지급 및 시간비례지급의 합리적 근거 없음
- 첨부 표 참조

○ 개선방향

- 수당차별(미지급, 시간비례 지급) 우선 개선으로 전일제 전환 토대 구축
- 지급하지 않거나 시간비례 지급하던 수당을 전액 지급(서울, 경남의 경우)

5. 학교 돌봄 교실 위탁(외주화) 금지

○ 현황

- 마을 돌봄 외에 학교 돌봄 교실까지 지자체나 법인 위탁 소지가 사라지지 않는 정책
- 초등돌봄교실 운영길라잡이에도 지속적으로 위탁 방안 제시
- 돌봄 교실이나 전담사 인력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학교 돌봄 생태계를 파괴하여 멸종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음
- 돌봄 교실의 불안정성 상승 등 돌봄 질 저하. 고용불안과 처우 등 노동문제 발생 가능성 다분함[3)]

○ 개선방향

- 17년 정규직전환을 통해 기존 위탁 돌봄이 직접고용 · 운영으로 전환. 다시 흔들지 말아야
- 운영주체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하여 학교 돌봄의 안정성과 내실 강화.
  즉 돌봄 전담 돌봄 교실 운영 권한과 지위, 책임성 강화
- 지자체는 마을 돌봄 중심 운영.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의 연계 및 보완 수준에서 정책 검토
- 관련 정책방향을 분명히 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길라잡이에서 외부 위탁내용

3)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지자체 소속 돌봄전담사에게 직접적인 지시/감독권 행사할 경우 불법 파견 소지가 있음. 지자체 관리 하에 있더라도 학교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상, 시설관리자나 행정실 등 학교 관리자의 직간접적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돌봄 교실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함. 이중관리로 인한 인력 비효율과 관리비용 증가. 관리책임 미루기로 돌봄의 질 보장이 어려워짐. 돌봄의 질이 공정하고 균일하게 통제되지 않아 수요자들의 불만이 야기될 수 있음. 돌봄전담사 간에 소속에 따라 임금 등 처우가 달라지므로 차별 문제 발생. 고용불안 요인 강화됨.

※첨부. 시·도교육청별 돌봄전담사 처우 현황 (2019년 4월 기준)

기본급 (19년 공무원인상률 미반영)		근속수당	급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학자금	상여금	명절비	맞춤형복지비
지역	**유형1 1,867,160** **유형2 1,672,280** **초단시간**	**전국공통급간32,500**	**130,000 시간비례**	**60,000 시간비례**	**전국공통 시간비례**	**전국공통 시간비례**	**900,000 시간비례**	**1,000,000 시간비례**	**지역차등 정액**
강원	유형2	전국공통	130,000	120,000	전국공통	전액	900,000	1,000,000	전액(300,000, 근속1년에 만원, 최대 50)
	초단시간	인원 없음							
경기	유형2(6시간비례)	전액	130,000	60,000	전국공통	전액	900,000	1,000,000	전액(700,000)
	초단시간	없음							
	기타	일부 1유형 및 1유형과 2유형 사이 기본급 인원도 있음							
경남	유형2(시간비례/1,003,368)	시간비례	130,000	60,000	전국공통	전액	시간비례	1,000,000	60만원을 시간비례로
	초단시간	미파악							
경북	유형2(시간비례)	시간비례	시간비례	60,000	시간비례	시간비례	시간비례	시간비례	전액(400,000)
	초단시간	미파악							
광주	유형2(시간비례)	시간비례	130,000	60,000	전국공통	전액	900,000	1,000,000	전액(500,000)
	초단시간								
대구	유형2(시간비례)	시간비례	130,000	시간비례	전국공통	전액	900,000	1,000,000	40만원을 시간비례로
	유형1(전일제)	전액							
대전	유형2(시간비례)	전액	130,000	60,000	전국공통	전액	900,000	1,000,000	40만원을 시간비례로
	초단시간(시급11,410)	인원 없음							
부산	유형2(시간비례)	전국공통	130,000	60,000	전국공통	전액	900,000	1,000,000	45만원을 시간비례로
	초단시간	미파악							

	기본급 (19년 공무원인상률 미반영)	근속수당	급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학자금	상여금	명절비	맞춤형복지비
서울	유형1(전일제)	전국공통	130,000	60,000	전국공통	전액	900,000	1,000,000	전액(450,000)
	유형2(시간비례)	시간비례	130,000	60,000	전국공통	전액	시간비례	1,000,000	45만원을 시간비례로
	초단시간(시급 1만원)	미지급							
	기타	전일제는 2019년부터 행정업무책임수당 월 3만원 신설하고, 시간제는 급식비를 6만원 정액으로 인상							
세종	유형2(시간비례)	시간비례	130,000	60,000	시간비례	시간비례	시간비례	시간비례	시간비례
	초단시간	미파악							
	기타	2019년부터 행정실무수당 월 2만5천원 쟁취							
울산	유형2(시간비례)	시간비례	일비례	일비례	시간비례	시간비례	900,000	시간비례	정액(450,000)
	초단시간/전일제								
인천	유형2(시간비례)	시간비례	시간비례	시간비례	시간비례	전액	시간비례	시간비례	50만원을 시간비례로
	초단시간	인원 없음							
전남	유형2(시간비례)	시간비례	130,000	60,000	전국공통	전국공통	900,000	1,000,000	40만원(2년마다 1만원 가산)을 시간비례로
	초단시간(시급 12,000)	미지급							
전북	유형2(시간비례) 4시간제 836,140	시간비례	130,000	60,000	전국공통	전국공통	시간비례 (45만원)	1,000,000	정액(400,000)
	초단시간	인원 없음							
제주	유형2(시간비례)	시간비례	시간비례	시간비례	시간비례	시간비례	900,000	1,000,000	정액(40만+a)
	초단시간	136명 18년에 단시간으로 전환. 인원 없음							
충남	**유형2 1,672,280 (시간비례)**	**전국공통**	**130,000**	**60,000**	**전국공통**	**전국공통**	**900,000**	**1,000,000**	**정액(500,000, 근속 1년에 만원, 최대 60)**
	초단시간	**인원 없음**							
	기타	**고교 무상교육실시로 학자금 지원 없어짐**							
충북	유형2(전일제 중심)	전국공통	130,000	60,000	전국공통	전국공통	900,000	1,000,000	정액(40만+a)
	초단시간	인원 없음							

신나는 충남초등돌봄교실 만들자!

충남초등돌봄교실
안정적 운영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충청남도의회 의정토론회

EDU * 토론

충남초등돌봄교실 현황과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언

김정아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세종본부 초등돌봄분과장

충남 초등돌봄교실의 현황과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언

김정아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세종지부 돌봄분과장

초등돌봄교실은 자녀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등의 1~2학년 학생 중심으로 가정과 다름없는 세심한 돌봄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는 공공성의 강화 측면에서 학생교육의 역할을 바탕으로 돌봄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으며, 돌봄의 핵심은 신체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을 추구 한다. 이로 인해 돌봄 교실은 학부모가 가장 신뢰하고 만족도 높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2006~2007년 보육교실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모든 초등학교에서 1~6개의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2년~2015년까지 (재)나우누리로의 위탁, 여러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교육협동조합으로의 위탁과 초단시간 돌봄전담사 채용으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으나, 2015년~2016년 세 차례의 교육감 직고용과 처우개선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모든 초등돌봄전담사는 교육감직고용으로 근무시간이 주 25시간으로 통일되어 있다.

1. 초등돌봄교실의 현황

초등돌봄교실 수(단위: 실)					
	2017년	2018년	2017년 기준 증감	2019년	2018년 기준 증감
천안	158	154	-4	160	6
공주	56	50	-6	52	2
보령	41	42	1	43	1
아산	71	71	0	71	0
서산	52	52	0	55	3
논산계룡	81	72	-9	69	-3
당진	53	50	-3	53	3
금산	22	25	3	23	-2
부여	31	40	9	36	-4
서천	36	29	-7	29	0
청양	42	30	-12	29	-1
홍성	55	51	-4	49	-2
예산	62	40	-22	45	5
태안	32	33	1	39	6
합계	**792**	**739**	**-53**	**753**	**14**

초등돌봄전담사 수					(단위: 인)
	2017년	2018년	2017년 기준 증감	2019년	2018년 기준 증감
천안	111	112	1	129	17
공주	34	32	-2	37	5
보령	30	29	-1	32	3
아산	61	60	-1	71	11
서산	28	29	1	41	12
논산계룡	44	44	0	49	5
당진	38	37	-1	45	8
금산	14	14	0	20	6
부여	19	19	0	22	3
서천	17	16	-1	21	5
청양	6	6	0	9	3
홍성	25	24	-1	30	6
예산	20	20	0	25	5
태안	21	21	0	23	2
합계	**468**	**463**	**-5**	**554**	**91**

2019년 3월 현재 총 753개의 돌봄교실에 554명의 돌봄전담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199개의 연계형 돌봄교실(돌봄전담사 배치 없이 교사나 방과후 강사만으로 운영되는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도는 초등돌봄전담사의 수는 별 차이가 없으나 돌봄교실수가 53개가 축소된 것은 각 학교별로 연계형돌봄교실이 축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상반기에는 처음으로 교육청에서 공개 채용함으로써 91명의 돌봄전담사가 늘어났다. 이는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2. 충남돌봄교실의 가장 큰 문제점 : 방학 중 돌봄교실 공백

충남교육청의 타 시·도교육청과 다르게 돌봄전담사의 근무를 방학 중 비근무 직종으로 분류해놓아 방학 때만 되면 각 학교별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2018년 기준을 방학 중(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포함) 50%이상 운영하는 학교는 28.4%에 불과하고 71.1%가 50%미만의 기간만 운영하고 있다.

각 학교에서 돌봄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족으로 이유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학교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으며 이는 학부모와 돌봄 전담사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2016년		2017년		2018년	
100% 운영	20	4.8%	23	5.5%	21	5.0%
90~99%운영	15	3.6%	12	2.9%	13	3.1%
80~89%운영	24	5.7%	17	4.1%	20	4.8%
70~79%운영	16	3.8%	17	4.1%	12	2.9%
60~69%운영	20	4.8%	26	6.2%	21	5.0%
50~59%운영	41	9.8%	37	8.8%	32	7.6%
소계		**32.5%**		**31.5%**		**28.4%**
40~49%운영	42	10.0%	38	9.1%	38	9.1%
30~39%운영	79	18.9%	75	17.9%	77	18.4%
20~29%운영	93	22.2%	92	22.0%	93	22.2%
10~19%운영	51	12.2%	70	16.7%	71	16.9%
10%이하	12	2.9%	9	2.1%	19	4.5%
소계		**66.1%**		**67.8%**		**71.1%**
미집계	**6**	**1.4%**	**3**	**0.7%**	**2**	**0.5%**
합계	**419**	**100.0%**	**419**	**100.0%**	**419**	**100.0%**

과거 3년의 기간을 비교해보면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10%에서 39%의 운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매년 교육청에서는 방학기간동안 돌봄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내지만 실제로 학교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학부모의 불편뿐만 아니라 방학 중 급여를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돌봄전담사의 생계에도 타격을 받고 있다.

3. 불합리한 휴게시간

총 551명 전담사 중 휴게시간이 별도로 명시가 없는 경우(별도 명시 없음, 별도 명시 없으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30분 확보, 외부강사 수업 중 30분 등)가 총 21명이며, 퇴근시간 30분 전(17:00~17:30, 16:30~17:00)이 총 15명이다. 돌봄운영 시간인 1시 30분부터 3시 30분 사이가 총 41명이다.

총 474명이 출근 후 1시간 이내에 휴게시간이 있으며 돌봄 활동을 준비하여야 하는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는 준비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게가 필요하지 않은 시간에 휴게가 부여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휴게시간	인원	휴게시간
별도 명시 없음	24	별도 명시 없음. 외부강사수업 중 30분, 별도명시 없으나 근무시간 중 30분.
퇴근시간 30분 전	15	**17:00~17:30, 16:30~17:00**
돌봄운영시간 중	41	13:30~15:30 분 사이 중 30분
출근후 1시간 이내	471	12:30~13:00, 12:00~12:30 11:30~12:00
계	**551**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은 5시간이지만 돌봄행정업무(문서작성, 문서기안, 간식업무 처리, 물품구입 업무, 돌봄교실 외부강사 채용과 관리 업무 등)가 대부분 돌봄전담사에게 전가되고 있어, 업무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사용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아동을 돌봐야할 돌봄운영 시간마저 행정업무에 뺏기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제는 근무시간 확대와 함께 사용하지도 못하는 휴게시간에 대한 유급화가 절실하다. 강원, 대구, 대전, 충북 등의 지역에서는 휴게시간의 유급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돌봄전담사외의 타 직종은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교육청에서는 무조건 쉬어라하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휴게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보다는 명시적인 시간 적시에만 급급하여 휴게시간을 빙자한 무료노동을 강요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 돌봄전담사 직종만 휴게시간을 이유로 5시간의 근무시간이 실질적으로는 5시간 반으로 30분의 무급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4. 채용할 땐 자격증 요구하지만 자격증 수당은 없다?

지역	초등돌봄 전담사수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평생교육사 자격증
천안	129	26	0	18	75	2	0
공주	37	14	0	6	17	0	0
보령	32	9	0	3	20	0	0
아산	71	14	0	7	44	3	1
서산	41	11	0	7	23	0	0
논산계룡	50	15	1	8	26	0	0
당진	45	7	0	6	29	2	0
금산	20	3	0	1	16	0	0
부여	22	5	0	1	16	0	0
서천	21	8	0	0	13	0	0
청양	9	1	0	0	7	0	0
홍성	30	7	1	3	16	0	0
예산	25	8	0	0	15	1	0
태안	23	3	0	4	14	2	0
소계	555	131	2	64	331	10	1

** 논산계룡에서 1명 많게 조사됨.

초등돌봄 전담사수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초등학교정 교사 자격증	중등학교정 교사 자격증	보육교사자 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평생교육사 자격증	응답없음
555	131	2	64	331	10	1	16
100.00%	23.60%	0.36%	11.53%	59.64%	1.80%	0.18%	2.88%

충남교육청 돌봄전담사의 97.12%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용 시에도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전문성에 대한 대우는 전무하며 자격증 수당도 지급하고 있지 않다. 자격증 필수 직종의 임금유형(급여 1유형, 영양사, 사서 기본급 유형) 조차도 적용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최근 들어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여 교육하는 직종은 대부분이 급여유형에서 영양사, 사서직종 유형인 1유형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초동돌봄전담사도 급여 1유형이 적용되어야 하며 자격증 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마땅하다.

5. 대체인력 없는 초등돌봄전담사

총 조사자 484명 중 사용가능한 연차일수 평균은 14.36개이다. 하지만 연차 사용일수 평균은 1.60개뿐이며, 연차를 100% 사용한 인원은 5명에 불과하다. (2018년 연차사용일수 기준)

50%이상 사용한 인원은 19명으로 보통 7개에서 13개 사이를 사용했으며, 219명은 단 한 개의 연차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머지 240명은 50%미만의 연차 사용. 이 중 1개의 연차만 사용한 인원은 83명이다.

연차휴가 사용비율	인원	비고
100%사용	5	
50%이상 사용	19	7개~13개 사용
50%미만 사용	240	1개만 사용한 인원 83명 1.2개~2개사용 79명 3~6개 78명
하나도 사용 못함	219	
계	**483**	

대부분의 학교에서 대체인력 채용 없이 합반을 강요하거나, 교사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다보니 교사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쉽게 연차휴가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교육청은 말로만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할 것이 아니라 대체인력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6. 고무줄 같은 돌봄교실 정원

돌봄교실의 정원규정이 명시된 곳을 두 군데이며 아래와 같다.

1) 2019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가이드라인(충남교육청 발간)

> 6. 운영규모
> ① 돌봄교실 당 학생 수는 20명 내외로 구성하여 편성·운영함을 권장한다. (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25명까지 가능)

2)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충청남도 교육청의 단체(직종별) 협약서

> 제 10조 돌봄전담사
> ② 돌봄전담사의 배치기준은 1교실 20명당 1명으로 한다. 단. 신흥아파트 밀집지역은 25명까지 가능하다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예외적으로 신흥아파트 밀집지역에 한 해 25명까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러한 설명 없이 최대 25명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신학기가 되면 각 학교마다 끊임없이 정원에 대한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또한 최대 25명에서 한 두 명만 더 받자는 관리자의 강요와 부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인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학교가 부지기수이다. 돌봄교실의 정원은 질 높은 돌봄 교실의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고무줄 같은 정원 기준으로 인해 아동들이 관리되지 못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면 돌봄을 신청한 모든 아동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정확한 정원관리가 필요하다.

교육청에서는 정원관리를 하기 보다는 매 신학기마다 돌봄교실 대기자 없이 모두 수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확인하면서 정원초과를 강요하고 있어 신학기마다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는 교육청에서 정확한 정원규정을 안내하고 그것을 준수하고 확인하는 공문을 보내야 할 것이다.

2019년 충남도교육청에서 발행된 [충남 초등돌봄교실 운영 가이드라인 및 길라잡이]에서는 2019년 초등돌봄교실은 학생·학부모가 보다 더 행복하고 안심하는 운영을 추진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목표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초등돌봄전담사를 배제하고 실현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엄마로, 때로는 놀이친구로, 때로는 상담사로 역할 하는 초등돌봄전담사의 처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신나는 충남초등돌봄교실 만들자!

충남초등돌봄교실
안정적 운영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충청남도의회 의정토론회

EDU * 토론

2019 충남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박동인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

2019 충남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박동인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

□ 초등돌봄교실 추진 배경

□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방과후 돌봄 서비스 강화 필요

- 학교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 강화를 통해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질 높고 안전한 돌봄 서비스 제공

□ 부처별로 운영되는 지역 돌봄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돌봄 서비스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필요

- 학교와 지자체 및 지역돌봄기관 간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여성가족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가정에서의 돌봄 | 학교에서의 돌봄 |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요

구분	운영 방안 개요	기대효과
프로그램	• 학생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무상 프로그램 매일 1개 이상 운영 • 놀이 및 안전관련 프로그램 병행 운영	⇨ • 프로그램 만족도 향상 • 전반적 만족도 향상
운영시간	•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 연장 운영 • 오후 돌봄시간 7시까지 연장 가능(지자체와 연계 권장)	⇨ • 수요자 중심 돌봄 서비스 제공
수익자 부담(비용)	• 무상 프로그램 1개 외 추가 프로그램 수익자 부담 • 급간식 수익자 부담 ※ 교육비 지원 대상 전액 무상	⇨ • 학교 자율성 확대 • 수요자 요구 수용으로 사교육비 경감 • 전반적 만족도 향상
간식	• 간식의 다양화 및 위생관리 철저	⇨ • 급·간식 관련 만족도 제고
초등돌봄 교실대상 학생	• 1~2학년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층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 중심 ※ 3학년 이상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기존 돌봄 참여 학생 중 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한 수용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 수용 • 돌봄체험 기간 운영(학교 자율) - 신입생 - 방법: 방과후학교 안내 오리엔테이션 및 체험 기간 운영	⇨ • 돌봄 서비스 질 향상 • 사회적 통념 부합 • 예산 및 여건 고려 • 현장의 의견 반영 • 학부모 이해도 제고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 1~6학년: 학년 특성을 반영하여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및 개인자율 활동	⇨ • 3~6학년 수용 • 학년 특성 반영 • 예산 활용 효율화
돌봄전담사	• 원격교육 지속 실시(http://www.초등돌봄.com) • 교육지원청 단위 연수 • 학교장 중심 사기진작 강화	⇨ • 전담사 만족도 증가 • 돌봄교실 서비스 질 향상
지역연계 활성화	• 각종 협의체(지역내 돌봄기관, 교육지원청, 지자체 및 유관기관) 운영 • 지역연계 초등돌봄 선도교육지원청 운영	⇨ • 예비교원의 돌봄 교실 이해 및 학생과 소통기회 제공 • 봉사인력 다양화

□ 초등돌봄교실 추진목표 및 주요과제

비전 — 학생은 행복하고 부모는 만족하는 초등돌봄교실

목표 —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는 초등돌봄서비스 제공

3대 중점 과제와 세부 추진 과제

1	수요자 중심 돌봄교실 운영	① 초등돌봄교실 내실화 및 단계적 확대 ② 방학 등 휴업일 운영 강화 ③ 학부모 대상 정보 제공 및 편의 증대
2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강화	①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운영 ② 돌봄교실 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③ 돌봄전담사 전문성 제고 및 사기진작
3	지역과 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체제 강화	① 지역 돌봄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② 교육기부 등 지역 자원 활용

□ 3대 중점 과제와 세부 추진 과제

1. 수요자 중심 돌봄교실 운영

가. 오후·저녁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1) **(돌봄교실)**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 부모 가정 등의 1~2학년 학생 중심으로 가정에서와 같은 세심한 돌봄 서비스 지속 제공
   가) 꼭 필요한 1~2학년 학생을 수용한 후, 추가 수용이 가능한 경우 3학년 이상 학생은 학교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수용
   나) 학교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돌봄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연장·조정 운영 권장

2)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1~6학년 학생 중심으로 학년 특성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한 교과 및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운영
   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2개 참여하면서 오후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대상으로 운영
   나) 별도의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서 교육기부, 자원봉사, 교원 등을 배치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간 틈새 프로그램 등을 운영

나. 방학 등 휴업일 중 돌봄교실 운영 강화

1) **(운영 방향)**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기 중 참여 학생 및 방학 등 휴업일 중 신규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 등에 대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2) **(운영 시간)** 돌봄교실이 방학 등 휴업일에도 학부모 수요를 반영으로 오전부터 적극 운영 권장
3) **(프로그램)** 매일 1개 이상 무상프로그램 제공, 학부모 수요 및 학교여건을 바탕으로 수익자 부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 가능
4) **(급·간식)**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에게는 전액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외의 학생은 수익자 부담으로 제공할 수 있음(학교 여건에 따라 운영)
5) **(안전관리)** 학생 및 돌봄전담사 대상 안전관련 교육 실시, 교육(지원)청 중심 돌봄교실 운영 현황 점검 등을 통해 방학 등 휴업일 중 안전관리 강화

2.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

가.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다양화) 학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개인 및 모둠 활동 프로그램 등 놀이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의 창의·인성 함양에 기여

나. 돌봄교실 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1) **(환경 개선)** 돌봄수요를 반영하여 돌봄교실 신규 증축, 전용교실로 전환, 기존 시설 보수로 쾌적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 조성
2) **(급·간식 안전관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의 영양과 수요를 고려한 급·간식의 다양성 확보 및 급식업체 선정을 통해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3) **(귀가 안전관리)** 학교 주변 지구대와 협력하여 돌봄교실 운영·귀가 시간 시 순찰 강화 및 학부모 동행귀가 등 귀가 안전 강화
4) **(돌봄 안전관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스템* 활용 및 대학생, 퇴직교원, 학부모 등 자원봉사 인력을 통해 돌봄 안전관리 강화

다. 돌봄전담사 전문성 제고 및 사기 진작

1) **(자격기준)** 돌봄전담사의 돌봄교실 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2) **(전문성 신장)** 돌봄교실 운영의 체계적 관리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도교육(지원)청 단위 돌봄전담사 대상 교육 강화
3) **(사기 진작)** 도별 돌봄전담사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 돌봄교실 우수 운영사례 및 우수전담사 발굴, 학교장 중심 학부모 교육 강화 등
4) **(대체인력)** 돌봄전담사의 휴가(병가 등)가 있을 경우 학교에서는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3. 지역과 사회가 함께하는 돌봄서비스 활성화

가. 지역 돌봄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지역돌봄기관 연계 강화) 교육청 및 지자체간, 학교와 지역돌봄기관간 돌봄서비스 연계 체제를 강화하여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체계** 〉

행정 단위	주관	주요기능·업무	관련 부처·기관
【도】 돌봄지원협의회	**시도 교육청**	■ 관할 내 돌봄협의회 컨설팅 등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돌봄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운영 ■ 돌봄전담사 대체인력풀 구성 협조	**광역자치단체 유관단체**
【시·군·구】 돌봄운영협의회	**교육 지원청**	■ 지역돌봄운영계획 수립·운영 ■ 돌봄기관 안내자료 제작 ■ 돌봄 관계자 대상 지역 단위별 공동 교육 ■ 학부모 대상 돌봄서비스 홍보 ■ 돌봄기관간 우수사례 발굴 ■ 돌봄전담사 대체인력풀 구성 협조	**기초자치단체 (드림스타트) 유관단체**
【단위돌봄기관】 권역별 협의회	**단위 학교**	■ 돌봄기관 공동설명회 개최 ■ 돌봄기관 간 정보 공유 ■ 돌봄기관 상호 방문 ■ 저녁돌봄 연계 및 프로그램 공유 ■ 돌봄전담사 대체인력풀 구성 협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드림스타트)**

나. 교육기부 등 지역 자원 활용

1) **(지자체와의 협업)** 교육청-지자체 간 돌봄 수요 해소를 위해 시설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지역사회 협력 모델 발굴·확산
2) **(프로그램 공유)** 지역돌봄협의체를 활용한 기관 간 업무협약 등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무상 활용 등 운영의 효율화 도모
3) **(인적자원 활용)** 대학생 및 학부모, 퇴직교원 등 자원봉사자 적극 활용
4) **(민간 자원 활용)** 학교 및 지역 여건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관, 학부모회 등과 연계·위탁 운영할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운영

□ 초등 돌봄교실 내실화 방안

첫째, 돌봄서비스 제공 및 운영을 위한 정부의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각 부처별로 제공하는 돌봄 기관이 산재해 있고 각 기관별 운영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돌봄 기관이 있는지 알기가 어렵고, 오직 학교에 있는 돌봄교실만 의존하게 되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돌봄서비스 수요조사, 신청절차가 상이하여 학부모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통합 관리 및 행정전달 체계가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방과후 돌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돌봄서비스가 온전히 학교의 책임인 나라는 매우 드물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방과후 돌봄을 지자체 및 지역사회에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부터 온종일 돌봄 생태계 선도사업을 시작하여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돌봄 시설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홍성군에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홍성초(1실)와 홍주초(2실)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저녁돌봄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포에 있는 LH아파트 커뮤니티 공간(3실)을 장기 무상 임대하여 저녁돌봄을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우수사례로 소개되어 전국의 지자체에서 문의와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셋째,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돌봄 사업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은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내의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최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법제화를 위한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아동기본법 제정과 동시에 학생 방과후 돌봄에 대한 국가 지원이 기본법 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생 중심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겸용교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학생의 정서적·육체적 휴식공간이 확보되기 어렵다. 또한 학교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학생의 피로도가 가중될 수 있다. 돌봄교실이 이용자와 교실 수의 증가 등 양적 확대에 집중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른의 입장에서 얼마나 편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서 벗어나 학생의 입장에서 얼마나 편안하고 포근한 돌봄공간을 제공할 것인가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 충남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 2019 충남 초등돌봄교실 현황

(2019. 4. 30. 현재)

학교 수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오후돌봄교실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			계	오후 돌봄 교실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계
	전용	겸용	계	전용	겸용	계				
420	519	126	**645**	7	97	**104**	**749**	13,670	2,458	**16,128**

○ 충남 초등돌봄교실 신청 및 참여, 대기 현황

(2019. 3. 5. 현재)

초등돌봄교실 현황			돌봄교실신청 학생 수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대기 학생 수	돌봄교실 수용율(%)
오후돌봄 교실	방과후 연계형	계				
645	104	749	17,126명	16,128명	**998명**	94.17

○ 2019 충남 초등돌봄교실 참여율

(2019. 4. 30. 현재)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전체 학생 수	21,050	20,729	20,436	19,398	20,014	20,865	122,492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7,059	5,680	1,184	857	688	660	16,128
비율(%)	34%	27%	6%	4%	3%	3%	13%

○ 오후돌봄교실 참여 학생 시간대별 퇴실 현황

(2019. 4. 30. 현재)

구분	13:30	14:00	14:30	15:00	15:30	16:00	16:30	17:00	계
퇴실 학생 수(명)	3	94	212	1,237	1,585	4,001	5,057	1,481	13,670
비율 (누적, %)	0.02	0.7	2.3	11.3	22.9	52.2	89.2	100	

○ 지역별 초등돌봄교실 참여 현황

(2019. 4. 30. 현재)

지역	운영 학교 수	오후돌봄교실		오후연장형돌봄[4]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		돌봄기관 연계[5] (저녁돌봄) 이용 학생 수
		교실 수	이용 학생 수	교실 수	이용 학생 수	교실 수	이용 학생 수	
천안	75	133	3,026	4	40	25	408	84
공주	28	44	928	1	6	13	443	22
보령	32	41	747	1	3	4	68	12
아산	46	71	1,600	0	0	2	40	25
서산	31	54	1,254	1	3	1	38	8
논산 계룡	38	58	1,192	0	0	11	311	151
당진	**31**	**51**	**1,204**	**1**	**13**	**1**	**40**	**18**
금산	17	23	427	0	0	0	0	57
부여	24	27	537	0	0	2	81	21
서천	18	22	397	1	14	4	81	44
청양	12	16	249	0	0	13	292	83
홍성	21	42	917	1	5	12	160	81
예산	24	34	686	2	19	12	381	146
태안	23	29	506	1	5	4	115	35
계	**420**	**645**	**13,670**	**13**	**108**	**104**	**2,458**	**787**

4) 오후연장형돌봄: 저녁 급식을 하지 않고 17:00~19:00까지 이용하는 돌봄
5) 돌봄기관 연계 이용학생: 오후돌봄이나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 참가 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

신나는 충남초등돌봄교실 만들자!

충남초등돌봄교실
안정적 운영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충청남도의회 의정토론회

EDU * 토론

선생님이 행복해야 (돌봄전담교사) 아이도 행복하다.

배정화 | 상록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선생님(돌봄전담교사)이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배정화 | 상록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세상을 살아가며 행복을 느끼는 지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 행복해야 하는 것은 권리가 아닐까요?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을 기억해 봅니다. 선생님의 역할은? 업무는? 수업, 아이들 돌봄, 시험문제 출제, 채점, 환경미화 등으로 항상 바쁘셨습니다.

가끔은 우리들에게 시험채점 합계를 부탁하시곤 하셨습니다. 고학년 때는 저학년 교실 칠판에 수학문제를 쓴 적도 있었습니다. 옛날이야기긴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도 참 힘드시고 바쁘셨겠구나!' 싶습니다.

요즘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선생님이 바쁘시면 학생들도 조용히 자기의 할 일을 해야 하고, 선생님이 기분이 좋지 않으면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대처합니다.

선생님의 감정을 주체 못하고 뉴스에 나오는 아동폭력이 비단 유치원에서만 일어날까요? 선생님의 인성의 문제일까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의 증가,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현상, 저출산, 고령화 등 변화되는 사회적 환경 속에 우리는 아이들을 누군가에게 맡기려 합니다. 그중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돌봄전담사'에게 떠맡기고 모르쇠로 방관하고 있지 않은지요? 돌봄교실의 주체인 돌봄전담사와 돌봄교실의 아이들 문제를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교육부(2016, 2017, 2018)에서는 돌봄전담사의 업무 및 역할을 교육청의 관련 지침, 학교 실정 및 돌봄전담사의 고용형태(무기직, 기간제) 등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2016, 2017, 2018) 지침에 따른 초등돌봄전담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 출결관리, 생활지도, 안전지도, 귀가지도
2. 돌봄교실 관리
3. 연간, 월간, 주간 운영 계획 작성
4. 프로그램 관리

5. 개인활동 관리
6. 급식, 간식 준비, 제공, 사후처리
7. 돌봄교실 관련 업무 협조 등입니다.

이 외 방과 후 전문가의 방과 후 아동지도사(초등돌봄전담사 포함) 역할을 통해 다른 측면에서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서영숙 外)

1. 학교교육이 끝난 아동들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역할을 대행하면서 학교에서 교사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채워 주어야 한다.
2. 돌봄아이들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애정을 가지고 대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심리적으로 변화의 폭이 큰 시기이므로 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3. 돌봄교실의 운영을 위한 전문성을 기준으로 할 때 돌봄학생지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돌봄학생지도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기획, 관리,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4. 학교 돌봄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은 연령별, 대상별로 교실 운영에 필요한 연간, 주간, 일일 생활을 계획, 수행하는 업무를 행한다.
5. 돌봄학생의 생활습관, 학습, 놀이 및 특별활동 지도,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을 조성하며 나아가 학생 발달에 필요한 영양 공급과 건강관리를 위한 급식을 담당하며 보건 위생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초등돌봄전담사의 역할은 부모이자 선생님이자 친구, 영양사, 행정사입니다.

2006년에는 '특기 적성 및 수준별 보충학습' 등과 함께 방과 후 학교에 포함되어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구현, 저출산 방지, 학교 교육 기능 보완, 여성 인력 활용 등에 시대적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도 근본적 체계조차 잡지 못하고 사회적 필요에 의해 공급 확대에만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돌봄교실 대상 학생은 맞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으로 부모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 시기는 생활습관과 학습관을 형성하고 지적, 정서적, 사회적인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하루 3시간 이상의 함께 하는 것은 학생들의 전인격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임무를 맡은 돌봄교실전담사는 노동 가치를 인정받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돌봄의 질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초등돌봄의 양적 확대에만 주력할 뿐이고 초등돌봄교실 확대가 발표된 이후 시.도 교육청에서는 단기간과 초단기간 전담사로 그 자리를 메울 뿐입니다.

결국은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시간으로 일하는 초등돌봄전담사들은 결국 집에 가서도 밀린 업무를 해야 합니다. 피곤한 상태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육한다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 서로 교감하는 교육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주하게 될 선생님은 업무에 지친 얼굴과 목소리라면 우리 아이들은 마냥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과 학부모는 돌봄교실이 집처럼 포근하고 친구와 모자란 공부를 하면서 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부는 초등돌봄전담사에게 연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주지 않으며 돌봄전담사가 갖고 있는 자부심과는 달리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담사는 때로 의욕을 잃습니다. 돌봄전담사들의 자격 요건은 초등교사자격증이나 보육교사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기알바처럼 대우하며, 돌봄전담사도 돌봄아이들을 편의점 손님 대하듯 하는 것이 옳은 모습일까요?

돌봄전담사들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곧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시간을 추가로 마련해 고용하고, 앞으로의 돌봄운영의 계획을 설계 할 때, 비로소 돌봄아이들의 환경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고용과 취직의 계산법이 아닌 돌봄아이들을 생각한다면 돌봄전담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돌봄전담사들의 열정을 담보 삼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돌봄교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 참고 도서 및 자료

○ 돌봄전담사 2019년 직종보고서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돌봄전담사들의 열정페이로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
- 김혜진 18. 12. 06. 매일노동뉴스

신나는 충남초등돌봄교실 만들자!

충남초등돌봄교실
안정적 운영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충청남도의회 의정토론회

EDU * 토론

충남 초등돌봄교실 내실화 방안

박기성 | 원당초등학교 교감

충남 초등돌봄교실 내실화 방안

박기성 | 원당초등학교 교감

Ⅰ. 생각하기

최근 우리나라에 가장 화두가 되는 문제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일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여 매년 출산율의 기록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매년 기록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수년 간 엄청남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결과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정책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왜 결혼하지 않고,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신혼부부에게 주택분양의 기회를 준다고, 아이를 낳으면 출산 축하금을 준다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었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싶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장래가 달려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그것은 일하면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를 낳으면 여자는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고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며, 아이를 맡기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고민하게 되고 결국은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아이를 낳아 길을 생각을 하겠는가?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는 이 문제의 해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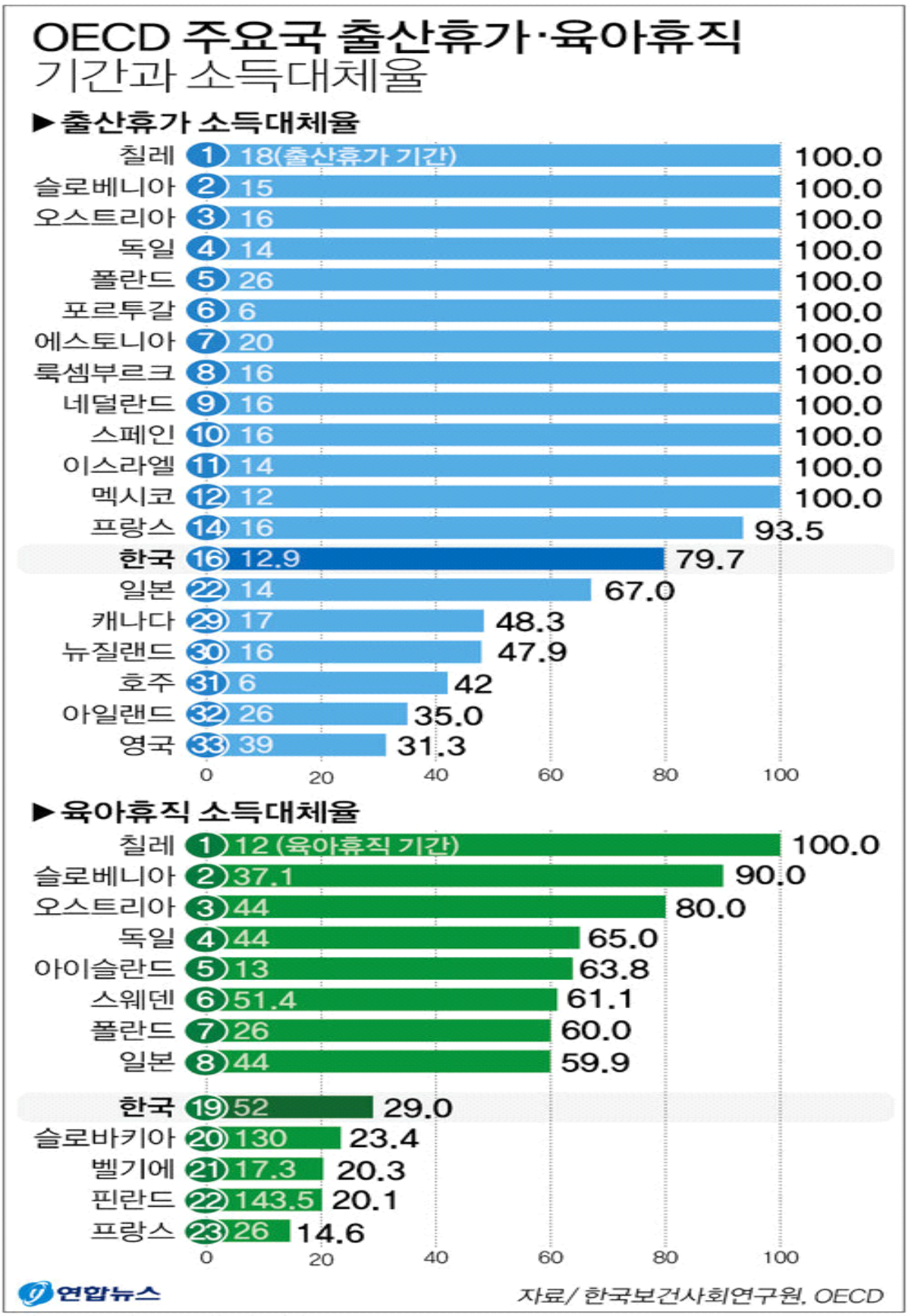
첫째, 출산과 관련한 문제이다. 여자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가져야만 한다.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도록 휴직의 기간을 가져야 한다. OECD국가들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은 평균 17.7주이고 우리나라는 12.9주(90일)로 5주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 국가들은 출산휴가의 기간이 우리나라보다 길고 소득대체율도 높게 나왔다. 육아휴직기간은 우리나라가 52주(365일)로 OECD 평균 36.4주 보다 16주 가량 길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은 다른 나라들 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OECD국가들은 출산과 육아를 위해 적당한 기간과 충분한 급여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게 출산하고 육아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직장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출산과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는 국가에서 보장하고 그 기간의 대체인력에 대한 급여도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예산투자가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 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돌봄과 관련한 문제이다. 휴직기간이 끝나고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가? 어디에 또는 누구에게 아이를 맡길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린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가까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기 위하여 추첨을 하고 대기번호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학부모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수준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봄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을 국가에서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부모들이 일터에서 돌아올 때가지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학원들을 다니며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런 돌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돌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결혼한 부부들은 아이들의 출산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덜 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다.



박영석 기자 / 20170327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Ⅱ. 충남 초등돌봄교실 현황과 문제점

1. 운영기관

가. 지역아동센터

2005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면서 그 이전에 무료로 운영되어 오던 방과후 공부방들중에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조건을 갖춘 사회복지시설이다. 기능은 보호, 교육, 문화 활동,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의 기능을 한다. 지자체의 예산지원과 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단체의 기부 등을 통해 운영에 도움을 받는다.

나. 초등학교 돌봄교실

전액 교육청의 예산지원으로 운영되거나 간식비나 방학중 중식비 등 학부모 수익자 부담을 일부 부담하여 운영된다. 교육청에서 채용한 공무직 돌봄전담사나 교사들에 의하여 운영이 되며 돌봄전담사나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거나 방과후돌봄 강사를 채용하여 방과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운영이 된다.

다. 시군지자체 운영 돌봄교실

지역의 공공시설(도서관이나 아파트주민 시설)을 활용하여 지자체에서 예산과 돌봄지도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며 공익요원 등을 배치하여 운영에 도움을 받아 돌봄업무를 지원한다.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학생들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고 학생들도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운영실태

가. 돌봄교실 운영형태와 학부모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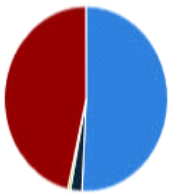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과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크게 3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다. 학기 중 평일 운영, 토요돌봄운영, 방학 중 돌봄운영이다. 원당초등학교의 경우 학기 중 운영은 1학년 2개반 50명, 2학년 1개반 25명 모두 세 개 반 75명을 운영하고 있다. 토요돌봄은 15명 정도가 신청을 하나 토요일에 참가하는 학생은 1명~9명 정도이다. 방학 중 돌봄 신청은 75명 정도가 하나 참가하는 학생은 20명~70명 정도가 참여를 한다. 원당초등학교에서 2019학년도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위하여 수요 조사한 통계를 보면 많은 학부모들이 돌봄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19학년도 원당초등학교 초등돌봄 수요조사 통계 〉

제목	2019년 범정부 공동 초등돌봄 수요조사		
발송일시	2018.12.10 10:25:45	수신대상	1344 명
열람	1270 명 (94.5%)	회신	648 명 (48.2%)

문항1 | 귀댁의 가구 유형에 ✓표 해 주십시오(중복가능). (응답자 : 563 / 1344) 필수 객관식 다중선택

* 교육비 지원 대상 : 관련 법령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자격을 가격을 보유한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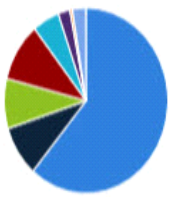


① 맞벌이 가구	288명 (51.2%)
② 한부모 가구	13명 (02.3%)
③ 교육비 지원 대상* 가구	3명 (00.5%)
④ ①, ②, ③ 해당사항 없음	263명 (46.7%)

문항2 | 2019년 귀댁의 자녀에게 방과후돌봄서비스가 필요합니까? (응답자 : 563 / 1344) 필수 객관식 단일선택

① 필요함	187명 (33.2%)
② 필요하지 않음	376명 (66.8%)

문항3 | 2019년 귀댁의 자녀에게 방과후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에 ✓표 해 주십시오. (응답자 : 563 / 1344) 필수 객관식 단일선택



① 필요하지 않음	345명 (61.3%)
② ~ 오후 3시	50명 (08.9%)
③ ~ 오후 4시	49명 (08.7%)
④ ~ 오후 5시	58명 (10.3%)
⑤ ~ 오후 6시	30명 (05.3%)
⑥ ~ 오후 7시	13명 (02.3%)
⑦ ~ 오후 7시 이후	3명 (00.5%)
⑧ 기타	15명 (02.7%)

나. 초등돌봄교실 운영방법과 문제점

1) 운영방법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대부분의 돌봄교실 관련 행정업무는 초등학교의 교사가 하고 학생들의 지도와 돌봄교실 운영은 교육청에서 채용한 공무직 돌봄전담사들이 담당을 하며 일부 프로그램을 방과후 강사를 채용해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는 돌봄전담사들이 배치되지 못하여 초등학교 교사들이 돌봄교실의 운영과 지도를 하고 있다.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다시 돌아와서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다. 토요돌봄의 경우는 따로 모집을 하고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한다. 토요돌봄만을 위하여 지원하는 토요돌봄강사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초등학교 교사들이 지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돌봄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보호자가 와서 학생들을 귀가시키고 있다.

운영시간은 학기 중 돌봄교실의 경우 보통 초등학교 교직원의 퇴근시간까지 운영을 하고 토요일의 경우는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방학 중에는 9시~1시(2시)까지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학생들의 보호자가 학생을 데리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귀가를 위하여 학원 운전기사, 학원 강사, 지인 등을 보호자로 등록하고 학생들을 귀가시키는 경우가 많다.

2) 문제점

돌봄교실 업무와 관련하여 승진과 관련하여 가산점이 필요한 일부 교사들만이 돌봄업무와 토요돌봄운영 업무를 희망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고 업무와 관련하여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 돌봄교실 업무를 기피하므로 돌봄교실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돌봄전담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들도 있어 초등학교 교사가 운영하여야 하므로 초등학교 교사의 업무과중과 방과후 강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하고 학생들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2019학년도 당진교육지원청 돌봄전담사 배치현황 〉

운영교	운영교실	전담사수	미배치교실	2019.9.1.자 신규배치(예정)교
30	51실 (분교포함)	45 (대체인력 2명 포함)	계성초(1), 고대초(1), 삼봉초(1), 난지분교장(1), 초락초(1), 북창초(1)	계성초(1): 대규모학교 성당초(1): 대체인력교 신평초(1): 대체인력교

돌봄교실 운영시간이 학교 교직원의 퇴근시간(5시)과 같다보니 학생들이 돌봄교실이 끝난 후에도 부모님들이 퇴근할 때까지 학원이나 공부방, 지인의 집에 가 있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과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귀가 시간에 맞게 돌봄교실 운영도 오후 6시에서 7시까지는 운영이 필요하다.

돌봄교실이 전용교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돌봄교실 참가학생이 휴식이나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일반학급 교사나 학생이 방과후에 다른 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

돌봄전담사가 한 곳에 너무 오래 근무하다보니 학교의 실정을 잘 알아서 좋은 점은 있지만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보다는 기존의 것을 답습하게 되어 돌봄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간식지원과 관련하여 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하려고 하면 최저가 입찰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식품 안전상의 문제로 인하여 완제품 과자류, 빵류, 유제품 등을 제공하여 간식이 질이 떨어진다.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과 맞벌이 가정 학생들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부모들은 많이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여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다. 또한 시설과 인력의 부족으로 대부분 학교의 돌봄교실이 1~2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지원이 필요한 가정과 맞벌이 가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로 대상을 6학년까지 확대를 해야하겠으나 시설과 인력의 부족으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Ⅲ. 문제의 해결을 찾아서

마음 편하게 아이를 키우며 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돌봄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아이 돌봄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고민하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도 가능할 것이라 본다.

유아의 돌봄에 관하여는 이 주제에서는 논하지 않고 초등학교 돌봄에 관해서만 논하고자 한다.

현재 초등학교 돌봄의 문제를 교육청에서 주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행정력이나 예산면, 주민복지 차원에서 볼 때 교육청보다는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육청은 지자체를 협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마을 공공시설, 아파트 주민 공공시설, 도서관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한다면 부모들도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초등돌봄교실의 수요가 많은 시내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센터를 만들어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대규모의 돌봄센터를 운영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돌봄센터운영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 할 수도 있어 좋다. 돌봄센터의 건물은 오전에는 성인을 위한 시설로 이용하고 오후에는 돌봄교실로 이용할 수 있다면 건물활용도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필요한 인력의 일부는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면 예산도 아낄 수가 있을 것이다.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것 보다 늦게까지 운영을 할 수가 있어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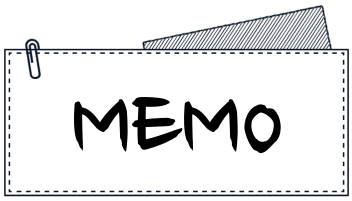
돌봄교실을 지을 용지가 부족하다면 학교에 지자체에서 건물을 짓고 운영하며 오전에는 학교의 학생들이 교육과정 활동 중 다목적 활동에 이용을 하고 오후에는 돌봄교실로 이용할 수가 있도록 하면 시설에 대한 관리를 늦게까지 할 수 있어 학생들이 늦게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어 유익하리라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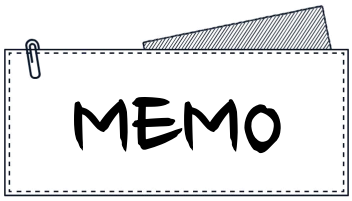
돌봄교실의 수요가 적은 소규모지역의 학교는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에서 채용한 돌봄전담사들을 활용하고 돌봄업무도 학교의 교사가 아니라 돌봄전담사들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 좋다.

교사들은 학교 본연의 업무인 교육과정에 운영에 충실히 하고 돌봄전담사들은 연수를 통해 행정업무와 돌봄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돌봄업무의 전문가로 양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돌봄교실 참여 학생들도 1 ~ 2학년 중심의 운영에서 1 ~ 6학년 모두 희망하는 수요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한다.

수요가 많은 지역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돌봄교실의 운영과 수요가 비교적 적은 지역은 교육청을 통한 학교 돌봄교실 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돌봄교실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MEMO


MEMO